회원이 만드는 신문

숲과 사람들

생명의 숲

vol.23
2013. 03. 07

발행처 생명의숲국민운동 회원활동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9-4 숲센터 5층 02-735-3232) **생명의숲 회원기자단** 임홍순(단장), 곽인호, 김경숙 노병권, 류춘희, 박서영, 박혜련, 백선길, 안민자, 양종운, 우상권, 이명덕, 이정남, 이정명, 임채현, 이흥연, 정 희, 홍용식, 황지현 회원 **자문** 이수현 사무처장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숲과 사람들 Forest & People

지구온난화와 우리들의 실천

1편. 기후변화와 숲가꾸기

지난 1월 11일 중국 베이징, 톈징, 허베이성 등 중북부 지역에 대규모 스모그(smog, 스모크 smoke와 포그 fog가 결합된 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도 중국을 뒤덮은 오염된 안개는 베이징의 경우 '미세먼지 PM2.5'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24시간 평균 25㎍/㎥)를 무려 40배 초과한 993㎍/㎥에 이르렀고, 지역에 따라서 최하 가시거리가 50~200m 밖에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 속에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자들이 급증했었다. 1월 중에만 세 차례나 더 발생하여 WHO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스모그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였다.

중국 정부는 스모그를 감추던 과거와 달리 재난의 바로 밑단계인 '오렌지경보'를 발령하고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현재 베이징은 시내의 관용차 운행을 중단하고 현대자동차 공장 등도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처럼 심각한 중국의 스모그는 황사(yellow sand)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들을 뒤섞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는 마치 요람과 같은 '자연온실'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업혁명이후 200여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로 인한 자연온실 기체의 증가 등으로 지구는 날로 더워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개발로 허파와 같은 숲이 무참히 파괴되면서 온실 기체의 양이 급증하면서 지구의 표면온도가 급상승해 소위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온난화 현상은 극지점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폭염과 홍수, 허리케인 등 극한적 기상현상의 '기후변화'와 '숲의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로써 지난 100년 동안(1912~ 2008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으며, 과거 1,0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생물종의 멸종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기온이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1.7℃나 상승하여 남쪽의 농작물 재배지가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대구의 사과가 충청지역으로 올라오고 제주도의 한라봉도 전남 고흥과 경남 거제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졌다. 남해안의 동백나무나 종려나무가 이제 서울 인근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식생도 침엽수림이나 고산식물이 감소하고 온대림은 아열대림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숲의 파괴'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서식지의 파괴로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먹이사슬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간의 '숲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매일 1,200만 그루의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발생량에서 17%를 차지(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전체 숲의 1/3이 이미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있다"는 사토브리앙(1768-1848)의 유명한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숲이 사라진 자리는 사막으로 변하여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을 잃거나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나무가 베어지면 숲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구촌의 절대 절명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본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사장 전영우)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숲가꾸기 캠페인은 숲이 간직한 커다란 중요성 때문이며, 배출하는 탄소의 양 만큼 나무심기로 숲을 통한 '탄소 중립적 삶'을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심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생명의 숲'은 개인과 가정, 직장에서 '탄소 제로'의 삶을 추구하는 생명운동을 끊임없이 펼치며, 숲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의 보전과 지구의 건전성까지도 함께 증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2편 : 재앙에 이른 지구
3편 : 작은 실천으로 지구 살리기

본 기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관심과 실천사례들을 기획기사로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임홍순 회원기자단 단장 yimhs@daum.net

생명의숲과 15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8년 3월 18일.
생명의숲이 회원과 더불어 행복한 숲을 꿈꾸며 숲운동을 시작한 지 2013년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15년의 활동을 디딤돌 삼아 더욱 가치 있는 숲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숲을 가꾸고 지켜온 모든 회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생명의숲 15년 회원

강대찬 강석철 김기원 김상종 김석권 김성열 김숙희 김옥등 김외정 김찬수 김한규 김형규 김홍연 남윤택 남화여 박동희 박말선 박문한 박원철 박인자 박현태 박희식 배상원 손강수 신상철 신현팔 심전섭 우수영 유근옥 유리화 유태환 윤근식 이경재 이돈구 이동환 이만재 이명동 이봉교 이상복 이성숙 이성희 이재근 이재룡 이철재 장석일 장평식 장현수 최기수 최상술 추지석 현정오 LG상록재단 유한M&C㈜ ㈜유한양행 ㈜한진P&C

위 회원님들은 1998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셔서 현재까지 지속해서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 먼지! 이렇게 대비하자.

매년 황사 일수와 빈도가 느는 추세다. 황사가 발생하면 대기 중의 먼지 농도는 평소의 네다섯 배가 된다. 황사란 몽골과 중국 사막지역, 황허 강 중류 건조지대, 황투 고원 등에서 형성되어 이른 봄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세한 흙먼지다. 최근 중국의 빠른 산업화에 따라 공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경우가 많아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사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발원지인 중국 사막에 나무 등을 많이 심어 사막화를 늦추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매년 오는 황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황사 안전 수칙

1. 황사예보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실내에 황사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고, 실내 습도를 적당히 유지한다.
3.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안경, 황사 마스크, 소매가 있는 옷 등을 착용한다.
4.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한다.
5. 평소 물을 자주, 많이 마셔서 콧속과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6.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도움된다.
7. 감기나 눈병, 피부병 등이 발생하면 병 · 의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한다.

현재 '한국환경관리공단' 에서는 기상 자료 등을 토대로 먼지농도를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실시간 정보시스템(www.airkorea.or.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백선길 회원기자 kil35h@naver.com

3월, 4월 환경행사 소식

창경궁 왕의 숲, 홍릉숲, 서울숲 무료 숲 해설

(사)한국숲해설가협회(대표 김의식)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 숲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도심 속 가까운 숲을 찾아 숲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해보세요.

창경궁 왕의 숲 : 매주 일요일 오후 14:00~15:30, 창경궁 일대
홍릉숲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30~12:00, 오후 14:00~15:30,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숲 : 매주 일요일 오전 10:00 ~ 11:30, 오후 14:00~15:30, 서울숲 일대
문의 : 02-747-6518

'책으로 숲 공부하기' - 자연독서 모임

생명의숲 류춘희 회원기자가 숲 관련 책 읽기 모임을 주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합니다.

목적 : 책으로 숲과 자연에 대해 이해하기
방법 : 1주 1권 필독, 독서 리뷰남기기, 월 1회 오프모임, 책 소개 및 정보나누기
일정 : 2013년 3월 ~ 2014년 2월
신청 및 문의 : 류춘희 회원(orora13@naver.com)

제3회 환경마라톤 대회

환경 캠페인,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제3회 환경 마라톤대회가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일정 : 2013년 4월 21일(일) 오전 8시~
장소 :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참가부문 : 하프코스, 10Km, 5Km
주요 내용 : 어린이 일일 마라톤캠프, 환경음악제, 장롱 속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어린이 환경 사생대회, 푸름이 이동 환경교실, 물 사랑 캠페인 등
참가신청 및 문의 : www.ecomarathon.kr, 02-358-1700

함께 나누고 싶은 시

지구의 주인, 나무에게

이른 아침부터 붉은 울음을 가쁘게 토해내고 있는 저 매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헤아리며 네게 이 편지를 쓴다. 여러 해 동안의 땅 밑 세월을 견디고 얻은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겨우 한 달뿐이라는데, 그래서 저리 울어대는 것일까? 아니면, 땅 밑이 훨씬 아늑하고 평화로웠다고 사무치게 그리며 울어대는 것일까?

나무야, 며칠 전에 이 편지의 청탁을 받았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떠오르는 가장 그리운 이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달라는 거야. 좋다 했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 붙은 단서였어. 수신인에서 가족은 제외해 달라는 거야.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을 떠올리되 살붙이는 빼라니, 피붙이는 배제하라니. 세상에 이리 가혹한 청탁이 또 있을까?

나무야, 그렇다면 누구일까, 누구여야 할까? 내게 그 사람은 바로 너였어. 사실은 이 물음을 화두 삼아 며칠을 서성였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군. 내 아무리 누추한 생이었지만, 선연선과(善緣善果)의 고마운 인연들이 어찌 한둘뿐이었겠어. 먼저 나를 키워준 어릴 적 고향의 벗들과 여러 은사님이 떠올랐지. 그리고 내 생업의 현장에서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라준 어린 벗들, 들꽃모임 '화사들'과 나무모임 '생명의숲'과 문단의 여러 인연들이 떠올랐어.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었던 향그러운 눈빛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어.

나무야, 그런데 왜 너를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러 세웠느냐고? 알면서도 너는 짐짓 다시 묻는구나. 그래, 나무야. 바로 너였어. 내가 가장 오랫동안 우러르며 따랐던,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기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니 그럴 수밖에. 오죽하면 내가 첫 아이의 이름자에 '나무 수(樹)'를 넣었겠어. 그리고 우리 네 식구 인터넷 아이디의 돌림자로 'tree'를 쓰겠어.

나무야, 사실 너는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 초록별 지구의 주인이야. 네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근거를 나는 여럿 가지고 있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궈낸 주역이 바로 너였잖아. 먼 옛날, 그러니까 태초에 네가 바다에서 뭍으로 올라와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너의 날숨으로 지구의 공기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생태계가 꾸려졌겠어. 또 이 지구가 '초록별'로 불리는 것도 누구 때문이겠어. 요일 이름에도 다 나와 있어. 네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일요일은 해, 월요일은 달, 화요일은 불, 수요일은 물, 목요일은 나무, 금요일은 쇠, 토요일은 흙이잖아. 이 일곱 가지 가운데 생명을 지닌 존재는 너뿐이야. 바로 너를 지구 생명체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거지. 요일 이름의 유래가 본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남들은 우기겠지만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나무야, 그러고 보니 내가 시인의 꿈을 처음 마음에 새긴 것도 너 때문이었어.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164번지, 여기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잖아. 초등학교를 마치고 읍내 중학교로 기차통학을 할 때, 역에서 내려 신작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지. 그 길 따라 미루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중학교 2학년 가을 어느 해질녘이었지. 그날따라 그 미루나무의 행렬을 내내 따라 걷고 싶었어. 하염없이 걷고 걸어서 아스라이 먼 그 어떤 곳에 닿고 싶었어. 그리곤 불현듯 나는 장차 시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어. 일순에,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솟아나온 생각이었지만, 내 생의 닻이요 덫인 시가 철커덕 내려지는 순간이었어.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하게 되었던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너의 이름을 뜨겁게 부를 수밖에.

나무야, 그런데 이를 어쩌지? 줄곧 너를 우러르며 살았으면서도 정작은 너처럼 살지 못했어. 자연스럽게, 보다 더 자연스럽게 살았어야 했는데….

나무야, 그동안 나의 들숨이 너의 날숨이었고, 너의 들숨이 나의 날숨이었음을 기억하자구나. 너와 나, 우리는 달디단 숨결을 서로 나눠 마셔온 사이였음을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품에 안겨 저 매미처럼 목 놓아 우는 날, 이 남루를 보듬어다오.

나무야, 그럼 안녕.

윤효 생명의숲 문화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오산중학교 교장

* 이글은 경향신문 "내 인생 마지막 편지"코너에 2012/08/21 실렸던 내용입니다.

백두대간 모니터링
백두야,
숲에 가자!

봄의 문턱에 서며

신비와 풍요를 약속하는 기사년의 입춘이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이 지났다. 그야말로 이제는 절기가 변화하는 전환점에 섰다. 발가벗은 채 겨울을 견뎌 온 나뭇가지의 겨울눈도 따뜻한 햇볕 앞에서 슬슬 기지개를 켜며 메마른 가지로 물을 올릴 준비를 서두른다. 그동안 산천이 눈으로 덮여 있어 '백두야'의 모니터링 작업은 휴면 상태에 있었지만, 여러 실내 강좌를 통해 답사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며 마음의 풍요를 누렸다.

우리의 백두대간은 국가 자연생태의 중심축을 이루며 다양한 생물권의 보고이자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지난 2월 모임에는 김하돈 백두대간연구소 소장과 백두대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비록 우리의 국토는 작지만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은 백두대간의 큰 산줄기를 바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 백두대간을 축으로 한 각 지역 고유의 특성은 고대 국가 형성에서부터 나타난다. 백두산에서 대간은 관서, 관북을 가르고 중부지역으로 내려와서는 영서와 영동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와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호남, 영남지역으로 나뉘어 지역 간의 현격한 차이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역마다 문화 풍속은 물론이고 기후까지도 달라 곡식의 파종 시기도 지역에 따라 십여 일가량 차이가 난다고 한다. 지역 간 경계나 국경이 백두대간과 이에 발원하는 물줄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역사와 인문사회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국립수목원의 이병천박사는 백두대간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대륙의 야생 동식물들의 이동 통로와 서식지로도 그 중요도가 아주 높음을 역설한다. 다양한 우리나라 고유종과 특산종, 희귀종의 산지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붕으로 중요 산들이 몰려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생명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 풍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체험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추풍령을 넘기는 백두대간 산줄기가 그 중요 대상지이다.

추풍령은 우리나라 남한의 중간 지역으로 서울과 부산의 가운데임을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중요 간선이 집결되어 국도는 물론 철도와 고속도로, 고속철까지 통과하는 나라의 핵이기도 하다. 추풍령의 잦은 개발의 결과는 백두대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도로와 시설물과 산불피해의 현장이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국토 녹화 사업과 훼손지 복구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추풍령 마루의 진산인 금산은 반쪽이 채석장으로 반 동강이 나서 금이 아닌 동이 되어 똥산이 되었다. 훼손지를 복원한다고 하지만 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백두대간 국가 숲길에서 제일 위험한 구역이다. 금산을 오르는 길에 대표적인 녹화사업은 은수원사시나무의 조림이다. 일명 현사시나무의 조림을 지나 위험한 정상을 비켜 넘어 내려가면 산불로 망가진 숲에 비애를 느끼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마주 보이는 모함산의 거대한 철탑을 향해 내려가다 도로를 만나면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잃고 헤매기 일쑤다. 흔하게 만나는 다양한 수종을 확인하며 경작지를 지나고, 기도터를 지나 용문산에 오를 수 있다. 곧이어 속리산을 건너다보며 국수봉을 지나 급격한 고도를 내려 큰 재에 닿는다.

백두대간보존법이 제정되고 이를 관장하는 곳은 산림청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복원이 아닌 훼손의 대표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루에는 오래된 아담한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다. 그 분교는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듯 폐교가 된 채 내려오다 백두대산 숲 생태원이 되었다. 복원 아닌 새로운 시설을 보며 우리의 학습은 끝이 났다.

이수용 전국 백두야 단장

강원도 골프장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지난해 12월 강원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1년 11월 4일부터 시작된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의 도청 앞 노숙장이 406일 만에 자진 철거된 것이다. 또한, 강릉 구정골프장 건설 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강릉골프장 건설 중단과 대체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고 479일 만인 올해 2월 7일, 강릉시청 앞 농성장을 철거했다. 그동안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강원도 내 곳곳에서 갈등에 놓여있던 강원도가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에는 52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3개가 건설 중이며, 허가 후 미착공은 6개다. 강원도는 그간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장기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인허가와 전반적인 추진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강원도골프장 민관협의회를 폐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상위개념의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골프장 민원 해결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특보, 도 복지특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골프장 민원 해결 특위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부터 해당 기관이나 시행사 측의 위 · 탈법 행위를 검토하여 관련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조성공사에 따른 묘지훼손 등과 같은 책임소재를 가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골프장 과잉 공급에 따른 환경 훼손과 오염, 지역 공동체 해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골프장 유지를 핵심으로 한 골프장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 골프장 인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허가에 앞서 민관협의회를 통한 정밀 검증과 골프장 착공 시기 변경, 현행 규정에는 없는 사업자의 자기 자본 비율도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자본금 확보'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3의 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주토록 해 골프장 인허가 상의 문제를 적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1년이 넘도록 생업을 포기하고 농성을 벌여온 지역주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앞으로 강원도 골프장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보존하는 범국민적 환경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 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2013년 숲문화아카데미 "숲에게 숲을 배우다"

말 그대로 숲에게 숲을 배우는 강좌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생명의숲 부피에룸(4층)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숲문화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일시
3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강좌명
내 삶에 찾아든 초록 공간
강사
이완주 박사 (베란다 식물학 저자)

일시
4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강좌명
한국의 나무 특강
강사
고규홍 작가 (한국의 나무 특강 저자)

일시
5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강좌명
식물들이 살아가는 법
강사
강혜순 교수(꽃의 제국 저자)

참가비

1강좌 당 회원 5,000원 비회원 10,000원
농협 1127-01-129305 생명의숲

참여문의

운영지원팀 02-499-6153

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의 발견,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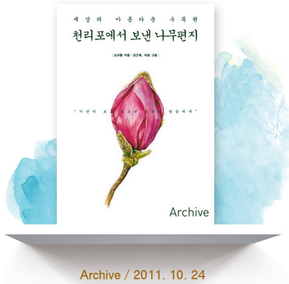
〈나의 발견, 찰칵!〉 코너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매 호 마다 1컷씩 회원(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싣습니다. 생활에서 접한 소소하지만 널리 전파해서 함께 보고 싶은 장면을 마주하게 될 때, 디카나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1~2줄의 설명글이나 감상글을 덧붙여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이메일: forest0318@naver.com)

오늘이 마침 입춘이라 이른 아침 출근하여
아무도 밟지 않은 수목원 내 산책로를 걷다가
연못가 물소리에 다가가 봤더니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더군요
추운 겨울을 지내고
저 나무에도 새순이 돋겠지요
나무를 키워내는 물에 담긴 또 하나 생명의 징표

글, 사진 오명훈 회원 (물향기수목원)

추천, 미디어의 숲

천리포에서 보낸 나무편지



Archive / 2011. 10. 24
344쪽 / 153x224mm

천리포수목원에는 섬개야광나무, 가시연꽃, 노랑붓꽃, 망개나무, 매화마름이 살고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갖가지 식물들이 살고 있지만 이 다섯 가지 식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 1~2급에 해당합니다. 이를 포함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총 64종 가운데 30종을 이곳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목원은 지난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에게 공개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비밀의 숲'을 찾아가는 듯 한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곧 봄이 오면 찾아가 보려는데 마침 '천리포에서 보낸 나무편지'가 왔네요.

편지를 띄운 이는 누구일까요.

늦은 오후 해가 뉘엿뉘엿할 즈음 분꽃의 꽃봉오리가 열리면 '저녁밥을 지을 때'라며 부엌으로 들어가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매일 시 한 편을 쓰시는 것으로 보였고, 가난한 어머니의 살림살이는 언제나 예뻤던 것으로 기억하는 아이. 그 어머니를 바라보던 아이가 글 쓰는 사람이 되어 두툼한 편지글을 책으로 예쁘게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푸근한 심성 그대로 천리포수목원이란 안식처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나무 같고 예쁜 꽃 같은 글귀를 편지 곳곳에 심어놨군요. 그중에 '하늘과 바람과 별을 가슴에 품고 시를 쓴 윤동주처럼 나무는 하늘과 바람과 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평화의 생명체입니다. 하늘을 향해 바람을 향해 나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제 살 곳을 찾아 머물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직수굿이 살아가지요. 윤동주의 시가 그런 것처럼 나무가 아름다운 건 그런 평화 때문입니다.'를 읽다 보면 나무를 거대하게 품은 우주라는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길어 올린 듯 청량해집니다.

많은 식물이 저자의 이런 섬세한 감성과 만나고 개인적인 경험과 만나면서 꽃과 나무들이 숨겨놨던 속살을 드러내듯 이야기합니다. 꽃과 나무들을 식물도감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꽃'과 하나의 '나무'로써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했던 만남이 곧 풀어집니다. 마치 말하지 못했던 숨겨둔 이야기를 한 뒤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사이처럼. 그렇게 꽃과 나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수목원의 경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순례객'을 더 큰 자연으로 스며들게 해줍니다.

편지는 계속 쓰일 것입니다. 수목원의 하루에 사계절이 다 들어 있어 1년 365일 꽃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소식. 섬개야광나무도 가시연꽃도 노랑붓꽃도 망개나무도 매화마름도 이젠 식구를 늘려간다는 소식. 나무편지를 띄운 글쓴이는 천리포수목원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떠날 줄을 모른다는 소식과 더불어 말이죠.

양종운 회원기자 yajowoo@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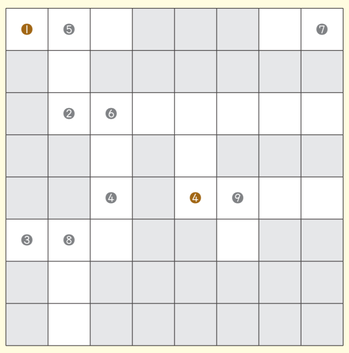
◎ 출제 안민자 회원

3월 초록퍼즐

재미있게 풀어보시고 정답을 생명의숲 홈페이지 〈숲과사람들 초록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① 그 나라 말을 오래 보존하는 길은 오직 그 나라 문학을 높은 수준에 올리는 것'이라 말한 시인
② 한 나라를 상징과는 꽃과 식물로, 그 나라의 자연 · 풍토 · 역사 · 문화와 관련이 깊은 식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③ 인공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로 '들꽃'이라 부른다.
④ 신라인들의 신앙과 염원, 뛰어난 건축미, 성숙한 조각기법 등을 보여주는 역사 유적
⑤ 산길을 걸어가거나 사냥하러 가는 것
⑥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것.
⑦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
⑧ 여름에 활엽수 뿌리 밑동이나 그루터기에서 발생하여 땅 위에도 돋는 버섯으로 '불로초'라고도 함.



세로

⑨ 숲가꿈이, 풀잎소리, 회원활동가, 자원활동가 등은 생명의숲의 OO이라 할 수 있죠.
⑩ 허균의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신분의 차별이나 탐관오리의 횡포가 없는 이상 사회
⑪ 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보존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생명의숲 회원모임
⑫ 이 돌은 단단해서 건축물로 좋고 대부분 석영과 장석으로 만들어져 색은 밝고 주로 비석, 건축재료, 축대로 사용된다.
⑬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을 이르는 말로, 녹화사업을 진행하여 이젠 우리 국토에서 OOO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⑭ 은행나무는 2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에 출현해 중생대에 세계적으로 번성한 가장 오랜 식물 중 하나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부른다.
⑮ 떠나가는 목적지로 '가는 곳'으로 부르는 것이 더 좋겠지요.
⑯ 가늘고 긴 세포가 세로로 늘어져 있으며, 세포막의 군데군데에 있는 가는 구멍은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통로가 되는 식물의 관다발 조직

⑦의 첫번째 글자와 의 ⑯첫 글자 조합은?

지난호 정답 : 해마 지난호 정답자 : 박찬정, 김동섭

FSC를 아시나요?

산림벌채는 1950년대 초부터 놀라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2012년 5월)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거의 절반의 숲이 사라졌으며, 이 때문에 서식지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숲은 광물 채취 또는 골프장 개발과 같은 토지이용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목재 이용을 위해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없어지고 있다. 예전보다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어 목재의 이용이 줄어들 법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가 소비사회인 만큼 목재 소비의 절대량은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목조주택에서 가구, 서류와 책, 나무주걱 같은 작은 소품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목재는 사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이나 '에코'라는 말의 유행과 더불어 이제는 고급스럽고 값비싼 소재가 되었다. 아궁이에 빨갛게 타고 있는 장작을 연상해 보면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 친숙하고 유용한 자원이었던 나무이지만, 이제는 과도한 이용으로 숲이 파괴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스스로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는 지구 상에 Autotroph (Auto '스스로', troph '영양')이라 불리는 식물밖에 없다. 즉, 곡식과 채소를 키워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듯이, 나무(목재) 또한 계획적으로 심고 가꾼다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숲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무를 잘 쓰고 다시 잘 심고 가꾸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패러다임에 따라 체계적인 목재생산과 숲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FSC라는 인증마크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는 비영리 국제 NGO로 목재의 수요량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벌목을 줄이고, 환경과 동식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는 산림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숲에서 생산된 목재와 목제품에는 FSC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동물실험반대, 공정무역, 환경보호 등을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바디샵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러쉬(머리빗)에서 FSC 인증마크를 볼 수 있다. 또한, 노란 연필로 유명한 독일의 STAEDTLER 브랜드는 FSC 인증 목으로 작은 휴대용 연필깍이를 만들고 있다. 해리포터 이야기 제 7권 '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종이와 FSC인증 종이를 이용하여 출간됨에 따라 마법의 녹색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지금 내 집안을 찾아본다면 나도 모르게 내 일상에 들어와 있는 FSC인증 마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의식적으로 구매한 물건이었다면,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환경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해보자. 물론 이에 앞서 충분한 자원 재활용과 절약은 피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김승순 생명의숲 활동가

우리 풀꽃 관찰일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변산바람꽃

© 이병함

절기상 입춘을 지나면 혹독한 추위도 한풀 꺾인다. 대동강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 경칩을 지나면 완연한 봄을 맞이하게 되지만 올겨울 추위는 작년 12월 초순부터 무던히도 추웠다.

미처 봄이 오기도 전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야생화가 몇 종 있다. 봄의 전령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복수초며 앉은부채 그리고 미나리아재비과 너도바람꽃속 식물인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등이다. 바람꽃을 위시하여 꿩의바람꽃, 홀아비바람꽃 등과 같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바람꽃속 식물이 여러 종 있지만, 꽃을 일찍 피우기로는 너도바람꽃속 식물인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에 미치지 못한다. 간혹 복수초와 같은 장소에 사는 너도바람꽃을 보면 복수초보다 먼저 꽃대를 내미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식물의 크기가 작고 개체 수도 많지 않은 너도바람꽃보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변산바람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변산바람꽃은 학명에 변산이라는 지명이 번듯하게 들어간 한국 특산종이다. 변산에서 처음 발견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점차 여러 군데 자생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나 점상으로나마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 같다.

어린이 한 뼘 정도 크기인 변산바람꽃의 자생지 환경을 보면 북사면의 물 빠짐이 좋은 완만한 경사지임을 알 수 있다. 가녀린 몸매를 가진 변산바람꽃은 도토리나무와 같이 낙엽이 지는 키가 큰 나무 밑에서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의 큰 나무가 잎을 내어 햇빛을 가리기 전에 서둘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2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생활사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남쪽에는 2월 초순부터 꽃대가 보이기 시작하므로 채 겨울이 끝나지 않는 시기이다. 개화 초기에는 꽃잎에 분홍색이나 보라색이 약간 가미되는 흰색의 꽃이 옹기종기 피어나는 모습은 인고의 세월을 견딘 애처로움과 함께 끈질긴 생명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아직 꿀벌이나 나비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시기임에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수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 시기에 거미류나 개미가 드나드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

여러 종의 바람꽃 종류는 몸체가 연약하여 바람꽃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것이나 너도바람꽃이나 변산바람꽃은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 한 가닥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면 꽃대를 내미는 바람의 의미가 더 어울릴 것도 같기도 하다. 겨우내 꽃소식에 목말랐던 야생화 마니아들이 바람이 들어 봄이 저만치 오고 있는데도 변산바람꽃을 만나기 위해 산길에 나서는 그런 바람인 것도 같다.

겨울 추위가 혹독하였던 서민들은 봄이 오는 것이 더욱 고맙다. 물질의 풍요보다는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지 모른다. 따사로운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병함 회원

움직이는 숲 속 친구들

곤충의 위장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곤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곤충의 종이 1만 2,000여종이라고 하니 세계적으로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지구 상에 약 120만여 종의 동물 중 곤충이 85만여 종에 이르고 동물계의 80%를 차지해 지구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곤충이 자신의 죽살이에 맞게 몸을 변형시켜 왔고 자연환경에 철저하게 적응하면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 김남덕

동물의 세계에서 위장술의 대가는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발군의 순발력으로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 냅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자신의 몸 색을 사는 환경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금강산의 금강모치는 수정같이 맑은 옥색의 계곡물에 맞게 변화시키며 횟감으로 인기 있는 우럭도 자신의 몸을 검은색과 밝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곤충도 수 만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환경에 적응시켜왔습니다.

여름은 곤충들의 세상입니다. 식물들이 녹색의 잎을 주렁주렁 달고 태양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동안 곤충도 나무에 의지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곤충의 애벌레는 자신을 몸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위장술을 사용합니다. 나뭇가지로 위장하는 방법입니다. 왕오색나비 번데기는 팽나무 가지에 매달린 잎으로 완벽하게 변해있습니다. 시야에 벗어나면 이들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탱자나무 가시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새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일 것입니다. 산누에나방 애벌레도 느티나무가지로 위장합니다. 녹색의 몸은 완벽하게 나뭇가지와 잎 사이에 숨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곤충들도 어미로부터 배운 위장술이 자자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또 더욱 완벽한 위장술로 무장할 것입니다. 위장술은 살아남기 위한 곤충들의 지혜입니다.

김남덕 춘천시청 '봄내'편집상임위원

우리아이에게 들려주는 나무이야기

"수액이 사람의 뼈에 이롭다는...", 고로쇠나무

– 단풍나무과 갈잎큰키나무 Acer patmatum Thunb.

© 박양수

꽁꽁 얼었던 숲 속에 남녘의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면 제일 먼저 봄이 왔다고 복수초, 변산바람꽃 등이 언 땅을 뚫고 나와 꽃이 핀다. 연약한 풀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씨앗을 만들어 보관했다가 봄에 싹을 틔우지만 나무는 줄기가 죽지 않고 겨울을 난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풀들과는 다른 전략을 쓴다. 푸른 잎을 떨구고, 줄기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뿌리에 보내고 필요한 수분은 얼지 않게 당도를 높여 추위를 견디고 있다. 한편으로는 나무의 겨울눈은 봄에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아 얼면 안 되므로 목련의 꽃눈에서 보듯이 두꺼운 털옷을 입거나 아린(芽鱗)이라는 겹겹의 옷을 입고 겨울을 난다.

고로쇠나무(Acer patmatum Thunb.)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신나무, 복자기,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당단풍 등이 있다. 잎은 5~7개로 갈라진 모습이 개구리 모양을 닮아 개구리손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단풍나무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고 있는 나무이다. 고로쇠의 어원은 골리수(骨利水) 나무에서 비롯한다. 글자 그대로 뼈에 이로운 수액이 들어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 수액에 자당, 칼슘, 나트륨, 철분 등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른 봄에 나무에서 얻어낸 수액을 약수로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절기로 경칩(驚蟄)이 오면 숲 속의 낮 온도가 영상으로 오르지만,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 계곡에는 얼음이 얼어 있다.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진 기온 때문에 겨울눈에 공급한 물이 얼면 안 되어 낮아지는 온도에 따라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뿌리로 다시 물을 보낸다. 이시기에 사람들은 고로쇠 수액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적당한 크기의 고로쇠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호스를 꽂아 수액을 받는다.

나무에 따라서 수액을 많이 만드는 나무들이 있는데 거제수나무, 다래덩굴,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등이 있으나 고로쇠나무가 가장 많은 양의 수액을 얻을 수 있고, 몸에 좋은 것을 알고 먹어왔다. 지금은 아무나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채취할 수 없고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수목의 크기와 정해진 기간에 수액을 채취한다. 고로쇠나무 수액은 여름에 먹을 수 없다. 뿌리에서 만들어진 수액이 잎에 공급되는 물의 속도가 빨라져 줄기에 상처를 내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액을 얻을 수 없다.

고로쇠나무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고려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선국사가 백운산에서 좌선을 오랫동안하고 드디어 도를 깨우쳐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 엉겁결에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아예 나뭇가지가 찢겨 나갔다. 이때 나뭇가지에서 물방울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침 갈증을

© 박양수

느낀 터에 목을 축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물을 마시고 일어나더니 무릎이 쭉 펴지는 것이 아닌가. 도선국사는 이 나무의 이름을 뼈에 이롭다는 의미로 골리수(骨利樹)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무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 나중에 변하여 고로쇠가 되었다고 전한다.

박양수 숲해설가협회

생명의숲 회원을 찾아서
—
안정화 회원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제가 하는 환경 실천이에요.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안정화(33) 회원을 만났다. 약속시각이 되어 한가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는 체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정도로 앳된 모습이었다. 등에 가방을 메고 나무로 된 투박한 스탠드를 안고 있었다.

© 류춘희

안정화 회원

워크숍 갔다가 오신다더니 바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일찍 마쳤어요. 다른 게 아니라 목공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스탠드를 만들었어요. 가구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서 토요일에도 배울 수 있게 게릴라성 워크숍을 열어요. 버려진 원목 가구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도 보세요. 밑에는 못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스위치도 달려있고 정말 사용할 수 있네요. 이런 재활용 문화 활동도 환경운동의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나요?

전에 금융회사 다녔는데 문서 작성하다 생기는 이면지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면지 활용 방법 검색하다가 녹색연합에서 나온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로 환경과 깨끗한 먹거리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름다운가게 성미산 책방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책방에서는 책을 기증받아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마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조금 내려오면 2층에 있는데 아세요? 좋은 책 많으니까 우리 가게 먼저 들러보고 주문하세요

금융회사와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와는 대조적인데 어떻게 아름다운가게에서 일할 생각을 하셨나요?

회사 다닐 때는 모두 잘 차려입고 좋은 물건 쓰고 그랬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물건을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회사생활이 정말 힘들게 했어요. 지방에 분점이 개설되어 발령 나면 다른 직원들은 울면서 못 간다고 할 때 전 다 갔거든요. 그러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생활이 훨씬 여유롭고 좋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할 때 책방에 꽂힌 책을 보면 뿌듯해요. 우리 책방에 정말 책이 많거든요. '이 책이 다 시민이 기증한 거라니! 착한 사람 참 많구나.' 생각해요.

보람 있는 일도 많겠어요?

네. 많죠. 우리 책방이 신촌에 있다가 2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작년 12월 추운 날 어떤 남자분이 책 100권을 들고 신촌으로 갔다가 책방이 없어진 걸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날 정말 추웠는데 화도 안내시고 이곳까지 다시 가지고 와서 좋은 일에 써 달라고 기증하고 가셨어요. 정말 고맙고 신기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열심히 일해야 겠다 마음먹게 되죠. 또 한겨울에 조손 가정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보따리' 행사 때 추운 날씨에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해주시는 거 보면 보람 있어요. 아직 세상이 따뜻하구나 싶고요.

아름다운가게 활동으로도 바쁘실 텐데 생명의숲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생명의숲은 아는 분이 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했다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단체의 형태와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죠. 안 쓰는 물건 재활용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요.

생명의숲에서 회원 활동은 어떤 것을 하시나요?

생명의숲에서 하는 활동은 자주 가진 못해요. 숲기행 좋아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자주 참석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옥상 파티할 때 참석했었어요. 같이 비빔밥 만들어 먹고 얘기 나누었는데 참 좋았었어요.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끈한 피부에 아름다운 안정화 회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내심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 심산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아는 활동가가 남자친구라고 했다. 놀라움과 실망의 표정을 교차하며 얘기를 이어갔다.

남자친구가 환경운동가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나요? 좋은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관심분야가 비슷해서 좋아요. 둘 다 자기 젓가락을 들고 다녀요. 나무젓가락 안 쓰기를 하는 거죠. 나무젓가락 주는 식당에 가면 둘 다 주섬주섬 가방에서 젓가락을 꺼내요. 이런 것을 궁상이 아니라 정상으로 봐주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에 2시간 동안 남산 길 청소 산책을 했는데 힘들긴 하지만 재밌었어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좋죠. 그런데 전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좀 힘들어요. ^^

안정화 회원에게 숲은 어떤 곳인가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확 다가오는 소중한 것. 마음이 힘들 때나 몸이 지칠 때 숲에서 숨을 쉬면 살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숲이 어떻게 사람들 가슴에 들어가게 되고, 왜 잊고 있다가도 숲을 찾아 위안을 받는지 무척 궁금해요. 회원님의 경우에는 왜 그런가요?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어렸을 때 저의 집 마당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어요. 계절이 되면 앵두를 따 먹고 무화과를 따 먹고, 봄이면 엄마랑 이모들이랑 산에 나물 뜯으러 갔었어요. 내가 먹는 게 산에서 나고 숲과 산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사할 때는 산책할 수 있는 쪽을 찾게 돼요. 뒤에 산이 있든가 천을 따라 걸을 수 있든가, 녹색 풍경을 찾게 되더라고요.

강원도 속초가 고향이라는 안정화 회원은 울산바위의 풍경을 보고 미시령과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았다. 버스를 타고 미시령을 넘어 올 때면 우거진 숲의 모습이 털이 몽실몽실한 것 같아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고 한다. 좋은 자연 풍경이 그녀를 도시에서도 자연스럽게 살게 하는 듯했다

생명의 숲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숲을 위한 연간 캠페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나무젓가락 안 쓰기, 손수건 갖고 다니기, 휴지 적게 쓰기, 종이컵 안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환경운동하기 캠페인을 하는 거죠. 종이도 나무젓가락도 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남자 친구와 저는 올해 목표가 나무젓가락 다섯 개 이하로 쓰기에요.

그녀는 이야기하면서 가방을 뒤적이더니 젓가락 주머니를 보여주었다. 안정화 회원의 일상에서 환경운동 하기 제안에 생각 없이 지낸 나의 모습을 반성하며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실천내용 정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울 것 같은 '나무젓가락 사용하지 않기'.

사흘 후 그녀가 일한다는 성미산 책방을 찾아갔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 뒤로 정말 책이 빼곡하게 쌓여있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이것이 다 기증한 것이라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책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다. 친환경 데이트를 즐기는 그녀의 결혼소식이 곧 들려오기를 고대한다.

류춘희 회원기자 orora13@naver.com

생명의숲 숲사람들의 이야기

신입회원 인사말

김태진 : 회원님들! 숲을 사랑하여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김현진 : 안녕하세요. 올해 가장 첫 번째로 잘한 일이 생명의숲에 가입한 것입니다. 가슴 답답하고 지칠 때 기댈 곳을 찾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 나무였고 더 나아가 숲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존하고 싶고 보호해야 할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혜지 : 안녕하세요? 지난 8월부터 백두야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푸른숲을 가꾸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

유홍진아 : 안녕하세요. 유홍진아라고 합니다. 새해에 제일 먼저 한 저와의 약속이 나무를 심는 거였는데요. 생명의숲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렇게 회원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처럼 천천히, 아끼고 나누며 자라고 싶은 스물다섯입니다.

생명의 숲 회원활동 모임 이모저모

라온숲

안녕하세요, 라온숲입니다. 3월에는 곤충팀, 식물팀 나눠서 매 주 금요일 총 10회에 걸친 심화교육을 예정 중이며, 4월에는 청소년, 유치원, 학교숲 등 숲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 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정기교육으로는 겨울나무 관찰하기, 비누 만들기, 손수건에 수놓아 선물하기 등 지식 나눔으로 라온숲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해주시기로 했답니다. 회원님들 모두 함께해요

숲누리식물교실

안녕하세요, 숲누리식물교실입니다. 매 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숲누리식물교실 공개강좌가 열립니다. 4월에는 초안산 모니터링 및 체험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생명의숲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합니다.

이정명 회원기자 l-ovestory@hanmail.net

칼럼 1

지하철 에티켓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처음 개통된 것이 1974년 8월이라고 하니 벌써 40년이 되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발판에는 국토개발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도심권의 지하철 개통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수도 서울만 해도 지하철은 모두 9개 노선에 하루 평균 600만 명의 승객을 태워 숨 가쁘게 뛰어야만 하는 도시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통팔달의 힘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지하철 이용을 통해 첨단의 IT 기술의 발달을 실감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모습들을 통해 세상변화를 직접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많은 대중이 누리는 혜택을 쉽사리 깨뜨리는 '무질서'는 누구나 한 번쯤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예전처럼 지하철에서 책을 읽기보다는 휴대폰에 빠져든 세태, 목청높인 휴대폰 사용 등은 남녀노소를 막론한다. 그래서 '쩍벌남'(양다리를 벌린 남자)이니 '변신족'(화장하는 여자), DMB족, 신문족, 변태족 등 다양한 별칭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젠 너나없이 일상화된 지하철문화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켜야 할 10대 에티켓'을 공표하기에 이르렀을까.

이를테면, 1. 혼잡한 시간에 무리해서 승차하지 않기 2. 승객이 내린 뒤 승차하기 3. 핸드폰은 진동/ 통화는 작은 목소리로 하기 4. 뛰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5. 신문은 접어서 보고, 가지고 내리기 6. 우측보행 지키기 7. 임산부, 어린이 동반자, 장애인에게 자리 양보하기 8.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고 손잡이 잡기 9. 잡상인 물건 안 사기 10. 부정승차 안 하기다.

필자는 이 가운데 딱 세 가지만 퇴출(?)했으면 한다. 첫째는 지하철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퇴출이다. 바쁜 도시민들의 어쩔 수 없는 행태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커피를 들고 서 있는 이들로 함께 타는 내내 불안을 느낀 적이 있었다. 둘째는 휴대폰 소음족의 퇴출이다. 특히 이어폰을 통해 나오는 소음은 더 거슬린다. 더 보태면 '고성 통화'다. 일부 노인 중 청각기능이 떨어진 분들이야 이해해야겠지만 대체로 자제력의 문제이다. 셋째는 '노약자석의 퇴출'이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일이다. 어쩌다 노인들이 중간 좌석에 오면 '제자리로 찾아가라'는 식의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일부 노인 중에는 젊은이들의 양보를 유도하려고 째려보는 '레이저빔족'도 있다고 하니 굳이 노약자석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경로 사상을 느끼고 자리를 양보할 수 있거나 불편한 분들을 위해 양보하는 문화가 생겨나야 한다.

많은 시민의 발이 된 지하철은 이른 새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우리의 애환이 묻힌 땅속을 쉬지 않고 질주한다. 이동식 좌판의 걸쭉한 입담에 웃고 때로는 팝송을 들어주는 이도 있다. 이따금 완장(?)들이 나타나 쫓고 쫓기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한 칸을 지나면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사의 쉰 목소리가 들린다.

임홍순 회원기자단 단장 yimhs@daum.net

숲지킴이의말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현재 진행형의 storytelling

'storytelling'이 유행처럼 여기저기에서 응용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태어나고 있다. 설화나 설화에서 출발하는 때도 있지만, 주로 미화되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사실과 상상과 허구와 적절히 섞여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도록 구성된 후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된다. 포장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빛을 발하기도 하고 곧 사그라져버리기도 한다.

자연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유한성 너머에 있을 것이나, 자연에 대한 무지, 유한한 인간의 시각에서 오는 한계성 등으로 인간이 개입된 이후의 이야기에 공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story에만 집착한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story는 듣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연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많은 시행착오 안에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story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잘 기록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선인 줄 알고 실행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자연과 인간의 상생에 저해요소로 남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성공 신화만이 값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헤쳐 온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현시대의 우리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할 기록이며 우리가 실행해야 할 storytelling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산림정책도 많은 난관과 부침을 겪으며 진행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결정된 정책의 실현은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그 혜택이나 폐해 또한 규모가 엄청날 수가 있다. 당연히 많은 논란과 찬반이 오랜 기간 따라다닌다. 논의 처음부터 그리고 실행이 되고 난 오랜 후까지의 모든 것이 모여 진솔한 story가 된다. 앞서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 뒤에 오는 이야기는 훨씬 더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 온 강릉 구정마을 골프장 사업이 취소되고 대체사업으로 방향이 수정되는 모양이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나, 그 시간 속에서 간과되거나 왜곡된 배경이나 명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자연에 가해진 깊은 상처와 훼손의 현장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달해야만 할까? 인간 중심의 storytelling은 인간의 눈에 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 시대의 화두에 맞춰 잘 포장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제활성, 자연 친화, 지역 개발, 환경 보전 등등. 하지만 도저히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자연의 시간 체제 안에서 스스로 치유해가고 있는 자연의 story를 항상 놓치게 된다. 우리가 전달하는 '지금'의 story가 후손에게는 소중한 어제의 이야기가 되어 또 내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오늘의 증인인 우리의 기록이 더욱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기록과 storytelling은 자연에 대한 감사와 열린 마음,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인간이 지금 현재 가진 것들에 오만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명덕 회원기자 cokid1@naver.com

칼럼 2

식목일(植木日)의 의미 되살려

나에겐 12년을 추억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에 결혼하고 그다음 해에 첫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식목일이자 한식일인 4월 5일, 시아버지 산소에 심었던 황금 측백나무. 잔디와 달리 그 나무는 12년 동안 아무런 돌봄 없이 아들과 함께 무럭무럭 잘 자라 시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다. '생명의숲'회원이 된 지금, 12년 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나무심기가 미약하나마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생각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흐뭇하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일 년에 한 번 나무 심는 날을 정하여 몇십 년 동안 국가적인 행사로 이어오면서, 일제 때 벌거숭이로 변해 버린 국토를 울창하게 바꾸어 놓았다. 내 유년 시절의 4월 5일은 법정공휴일로 전교생이 선생님과 함께 어린 소나무 한 그루씩 들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기도했던 식목일의 의미가 큰 하루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됨으로써 기성세대들에겐 이름만 남아 있는 추억 속의 식목일로,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겐 나무 한 그루 심어 본 적이 없는 무의미한 날이 되어 버렸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촌 여기저기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생명의 원천인 숲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작은 실수와 부주의로 애써 가꾸어온 울창한 숲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쁜 현대인들은 나무 심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12년 전의 나의나무 심기가 유년 시절 이후 처음 있었던 것만 보아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식목일에 나무심기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다행히 생명의숲 회원들은 자신들의 작은 실천이 느리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꿈꾸며 나무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천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각 학교나 직장에서 4월 5일을 나무 심는 날로 정하여 이날만은 교실에서의 수업이나 사무실에서의 근무가 아니라, 직접 나무를 심는 것으로 수업과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면 법정 공휴일 운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나무심기운동이다.

한 사람이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은 어렵지만, 수천 명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 년에 단 하루라도 나무 심는 날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게 했던 식목일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좋겠다. 당장 다가오는 이번 식목일부터 조상의 산소에 성묘만 하고 오는 날이 아니라, 더하여 나무 한 그루 심어 보는 건 어떨까?

이정남 회원기자 zeusmsk2@hanmail.net

일러스트 : 황지현 회원

숲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꿈꾸는 전북 생명의숲

우리숲탐험대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태놀이

섬진강캠프 점프사진미션

아름다운숲기행 합천 가야산 소리길

전북생명의숲 소개

전북 생명의숲은 2003년 8월 7일에 창립되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숲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회원과 함께하는 나무심기운동,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독거노인돕기 땔감나누기운동,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숲운동, 아름다운 숲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숲기행, 초등학생들을 위한 우리숲탐험대, 아이들의 상상력 증진과 목재의 소중함을 알리는 목재체험교실, 장애우를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인 해밀숲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은 김택천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님들을 비롯하여 김정숙 사무국장, 한은주 팀장, 이은성 활동가를 중심으로 운영위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생명의숲에서 전하는 인사말

2013년 계사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전북생명의숲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 전북생명의숲은 전통과 맛의 고장 전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 하지만 태조 이성계와 조선 건국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오목대와 이목대, 백제문화가 살아 있는 후백제의 견훤산성이라 불리는 남고산성, 한옥마을과 전주를 둘러싼 둘레산 등 전주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 많다는 것은 다들 모르실 겁니다. 생명의숲 회원들께서 전주에 찾아오신다면 전주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숲이 주는 아름다움과 숲의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북생명의숲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 중 가장 자랑하고 싶고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09년 상반기부터 장애우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치유해온 '해밀숲' 프로그램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해밀'이란 순우리말로 〈비가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란 뜻으로 장애우들 나름의 상처가 있지만, 숲과 함께하며 그 상처도 곧 행복함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와 정읍장애인복지관 만성정신질환자 회원들과 함께 숲에서 숲체험, 목공체험, 간단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처음엔 무표정하고 인사를 건네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있던 이들이 콧노래도 부르고, 진행 날마다 만나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선생님, 선생님 부르며 과자 하나라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2012년 마지막 날 장성 입암산 숲체험이 끝나고 장애우들이 직접 진행한 선생님들께 쓴 편지를 받았을 때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올해에는 2009~2012년 사업을 발판삼아 정신보건센터와 사무국, 전문가와 연계하여 숲치유 매뉴얼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보다는 늘 다른 업무에 치여 회원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 늘 죄송한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는 회원들과 함께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전북생명의숲 회원은 모두 몇 분인지요?

현재 전북생명의숲에서는 550여 명의 회원이 생명의숲을 가꾸기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3년 전북생명의숲 활동계획

2013년에는 미래의 숲을 가꾸는 주체가 될 아이들을 위한 우리숲탐험대를 비롯해 아름다운숲기행, 사회적 약자 숲치유프로그램 해밀숲을 진행하고 생명의숲에 기본이 되는 사업인 회원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숲가꾸기, 땔감나누기, 숲정책모니터링,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프로그램, 민과 관, 단체가 연계한 프로그램, 1+1회원확대 캠페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어느 날인가 시민 한 분께서 사무실을 찾아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뭐냐고' 물론 혜택을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 대신 지속가능한 숲을 가꾸고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환경을 위해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만 회비를 낼 수 있고 혜택을 주고 회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단체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2013년 한 해 동안 생명의숲 회원님들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전북생명의숲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interviewer 정 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숲과 사람들은 친환경 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재생용지 그린라이트지로 만들었습니다.